

사유림 경영의 답을 찾다5

춘천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글+사진. 김흥중(한국농업신문 기자)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은 춘천호 일대의 전형적인 산악지대다. 화천군 사내면과 하남면에 접하고 있는 이곳에는 춘천호뿐 아니라 울창한 천연림을 그대로 간직해 전문 산악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용화산이 자리하고 있다. 12㎞의 등산로를 따라 해발 878m의 용화산 정상인 만장봉에 올라서면, 멀리 화천댐 파로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용화산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춘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사북면 송암리 일대에 있다. 송암(松岩)이란 이름은 과거부터 마을 내 소나무와 바위가 많았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공유림 167ha, 사유림 607ha 등 총면적 775ha에 달하는 구역이 지난 2019년 산림청 정책지원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 사유림의 선도적인 경영모델이 되기 위해 탈바꿈한다. 이곳의 산주 수는 100명이고, 필지 수는 98필이다. 단지 내 인공림에는 침엽수인 잣나무와 낙엽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활엽수로 조림한 자작나무, 사시나무, 옻나무, 헛개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탄탄한 기본계획 속에서 '미래 산림살이' 꿈꾸다

"산림살이하기 좋은 춘천 사북. 돈이 되는 숲! 함께 어울리는 숲! 터전이 되는 숲!"

이는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의 핵심 비전이다.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선도 모델이 될 단지를 뽑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경제임업 실현을 위해 사유림의 효율적인 경영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이는 산림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가치이기도 하다.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단지의 비전과 목표, 추진사업, 추진과제 등을 함께 수록했다. 특히 차별화되고 실현가능한 운영전략을 담았으며, 산림경영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추진과제도 수록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기본계획은 단지 경계 및 관리 단위 구획→정밀산림조사 및 사회·경제조사→기본계획(안) 마련→설명회·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기본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된다.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기본계획 조성에도 차별화된 전략을 세웠다. 정밀산림조사, 임업 및 임산업 사회·경제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마다 각각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자료의 전문성을 높였다.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산주와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지자체, 경영주체 등이 여러 차례 보고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이후 사업 분야별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와 현장 의견수렴 내용을 합쳐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돈이 되는 숲 만들기 보물山', '함께 어울리는 숲 만들기 어울林', '터전이 되는 숲 만들기 살林'이라는 3대 전략 과



제와 함께 임도 시설 구축, 산림 방문객 조성,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목재생산 및 임산물 생산액 확대 등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주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단지 운영위원회와 산주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주민소득 향상을 목표로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작목반을 운영하며, 산주와 소통하는 경영컨설팅과 소득작물 재배에 대한 기술 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활엽수의 용재를 생산하고 투명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효율 저비용 목재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원목·목재제품 판매를 위한 유통체계도 마련한다.

끝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 이는 숲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목적 임도를 신설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사람 누구나 산림경영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에 있어 최우선 고려 대상자는 바로 산주다. 이를 위해 산주가 자발적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영주체인 춘천시산림조합(이하 춘천조합)에서는 산주가 소유한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가 가능한지, 원목 판매 시 용도, 원목 가격, 수취 가격 등 사유림 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와 재배기술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단지 내 산주의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사업 참여에 대한 산주 동의율을 높이는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차별화된 산림경영 컨설팅을 위해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연차별로 단지 내 산림자원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주의 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소통 채널도 추가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 안내, 연간 사업추진 실적, 사업평가 결과 등을 산주에게 개별적으로 알려 신뢰를 얻고 있다.

운영위원회도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에 한몫하고 있다. 선도단지에서는 산주 2명, 지역주민 2명, 외부 전문가 3명, 지자체 공무원 2명, 경영주체(춘천조합) 2명, 총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지난해 2월 공식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1년에 3회 이상 모이며 선도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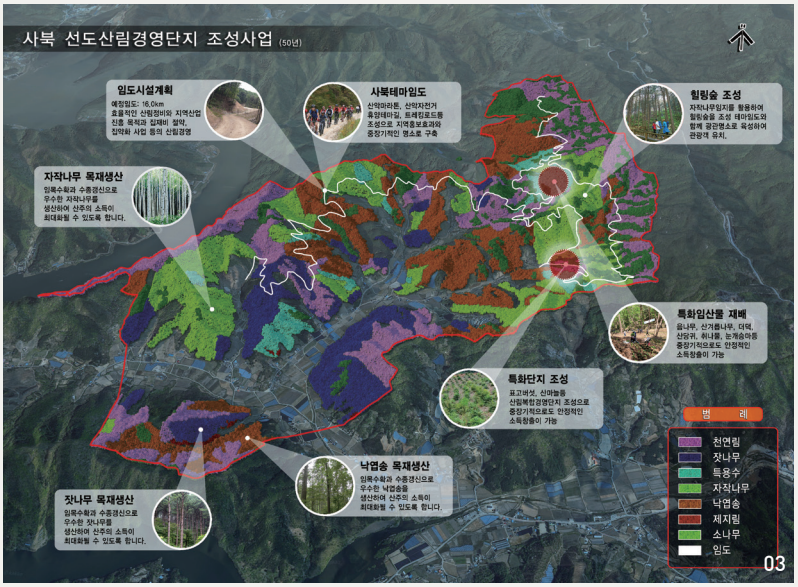
운영위원회는 산림경영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매년 추진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량, 사업비 등 사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일을 한다. 또한, 사업 준비와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업무 협조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산림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다.

사북 산림경영단지에 이야기를 입히다

산은 오랜 기간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졌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이 사실에 착안해 선도단지 내 산림에 인문학적인

0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답사
02 산주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







03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조감도(50년 후)
04 산림생태문화탐방로 개발 예정지인 '개적심폭포'
05 임목수확작업
06 특화임산물(산마늘) 재배단지

접근을 시도했다. 춘천 사북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독특한 산림문화를 창출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인 2020년에는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림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용역을 실시했다.

선도단지에 스토리를 입히는 과정은 곧 '산림생태문화탐방로 개발'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 산림생태문화탐방로 개발은 길을 통해 산림 생태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의 역사와 잃어버린 이야기를 되찾음으로써 해당 지역만의 특화된 테마 중심의 노선을 발굴하는 것이다. 옛길을 따라가는 도보여행이나 산림작물단지 체험과 연계한 코스로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탐방객에게는 임산물 수확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법이자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득증대로 연결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같은 스토리 작업은 선도단지 내에 개적심폭포, 베틀굴, 명품숲 등 자연생태자원과 성황당 신주터, 마을산, 산림역사, 승방터, 절터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한 가지 예로, 개적심폭포는 과거 기우제 장소로, '개적심'이라는 말은 가물 때면 마을산에 있는 영험한 바위에 개의 피를 뿌려 하늘의 부정한 기운을 씻어 내리는 의식을 말한다. 또 성황당 신주터는 송암리에서 산천제를 지내는 성황당 옆에 있는 동굴이다. 이처럼 선도단지 내에 있는 그 지역만의 이야기는 산림경영을 위한 훌륭한 재원이 됐다.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여러 스토리 자원을 산림생태문화탐방로 등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스토리 자원과 마을, 사람을 연결해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림문화를 매력적인 콘텐츠로 개발해 방문객 유입을 늘린다는 취지다. 이는 마을의 소득증대와 함께 궁극적으로 마을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 다목적 활용을 위한 '테마임도' 조성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올해로 3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임도 시설 사업 추진에도 매진하고 있다. 2년 차였던 지난해까지 누적 5.35㎞의 임도를 시공했으며, 올해는 2.4㎞를 추가 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림복합경영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도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단지 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와 연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산림경영에 필요한 최적의 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향후 선정된 노선을 기반으로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과 목재수확사업을 추진해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역사·문화를 접목한 '테마임도'로 활용한다는 장기계획도 세웠다.

이에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산림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임도 신설 계획에 맞춰 임도를 조성하고 있다. 임도를 단순히 산림경영 기반시설이 아닌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노선 선정계획을 세운 것이다.
더불어 사용 목적과 용도를 구상해 산림관리시설의 기능 유지뿐 아니라 산림문화·휴양·레포츠 등 특정 주제에 맞춰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북 선도단지만의 특색 있는 테마임도 노선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송암리 지역은 25개소의 주요 포인트를 유형에 따라 문화·역사, 마을시설, 경관자원, 자연자원으로 구분했으며, 임도를 활용한 트레킹 길에 이 지역만의 특화된 테마 중심 노선을 발굴했다.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산림경영을 위한 목재생산형 임도를 활용하는 노선과 함께 성황당, 베틀굴을 기점으로 하는 동남 지역 역사·문화형 임도를 개설하고 마을 주변 트레킹 길에서 비롯된 산림레포츠·휴양형 임도도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주 위한 산림경영 착실히…경영주체 자율성도 높여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산림경영계획에 맞춰 조림, 숲가꾸기, 사방사업, 소득사업 등 산림경영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78.21ha 규모의 숲가꾸기사업을 마쳤다. 3.5ha 면적에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특용수(음나무)를 식재했으며, 그 밖에 조림지가꾸기사업도 완료했다. 아울러 송암리 산림소득작목반을 결성해 소득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현재 선도단지 내 마을림에 산마늘, 표고버섯재배원목, 더덕씨, 산당귀, 취나물, 눈개승마, 두릅나무 등을 식재해 임산물 재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단지 내 활엽수 임지에 대해 직영벌채(3.5ha)를 추진해 600톤 규모의 임목수확사업을 시행했다. 벌채목 판매로 약 4,3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산주에게 약 570만 원을 환원했다.
올해는 15ha 규모의 임목수확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이 중 5ha는 온비드(Onbid, Online Bidding)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부문의 공개경쟁입찰 시스템으로, 공개매각 방식이다. 산림조사를 거쳐 수종별 입목 재적을 조사하고, 시장가역산법에 따라 기초금액을 산정한 후 최고입찰가를 최종 낙찰금액으로 해 계약을 체결한다. 온비드를 통한 입목 공개매각은 산주에게 더 많은 소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경영사업은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영주체인 춘천조합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춘천조합은 경영 업무를 전담하는 선도산림경영과만의 별도 사무실을 조성해 업무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산주,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지자체, 산림조합, 용역수행기관 등이 다 함께 수시로 모여 토론과 회의를 거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소통을 기본으로 삼아, 지역주민과 산주 설명회 등을 가졌고,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과 산림경영에 대해 참여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각종 정보도 제공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셈이다.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10년간의 산림경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사유림 경영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산주와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하고, 나아가 사유림 경영 활성화의 성공적인 모델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05


06